

광역동 치료를 시행한 조기 후두암 5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심윤상 · 이용식 · 이국행 · 홍성출 · 김광일

목적 : 기왕의 치료력이 없는 초기 후두암에서 광역동 치료의 효과를 확인해보고, 부작용을 살펴봄으로서, 새로운 치료법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본원에서 광역동 치료를 시행한 초기후두암 5례(Stage I 4례, Stage II 1례, 남자 4례, 여자 1례, 평균연령 59.6세)에 대해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5례에서 모두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평균 약 8일 후 기관 튜브를 제거하였다. 평균 재원 기간은 14.3일이었으며, 시술 후 10일째 퇴원 가능하였다. 시술 6주 뒤 외래를 방문하였으며,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13.4개월(6~31개월)이었다. 치료 결과 3례는 완치되었으며, 2례에서 재발하여 레이저 소작술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였다. 부작용으로는 전례에서 후두부의 심한 통증과 후두 부종이 있었으며, 4례에서 반흔 형성이 있었다. 그외에 피부 색소 침착과 광감작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각각 1례에서

있었다.

토의 : 5례 중 2례에서 재발하였는데, 가능한 재발 원인 들로는, 두꺼운 전교련부 병변과 후두의 굴곡으로 인한 불충분한 광 전달, 광섬유 및 레이저 시스템의 불안정등이 있다. 재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날 한번 더 시술(아직 광감작제가 남아 있을 때)하거나, 광섬유의 교체(광섬유 가격 인하)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비교하여, 기관 절개술이 필요하고 후두 부종과 극심한 통증 등의 부작용과 60여 일간의 암실생활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부작용이 일시적이며, 한번의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차적인 암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 : 광역동 치료는 성문부, 성문하부, 전교련 등에 발생한 T1, T2의 초기 후두암에 선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좀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